

<한국 YMCA운동 100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 토론

박영숙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운동체가 1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서울)YMCA의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국 YMCA 운동 100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라는 주제 하에 19세기 말에 태동한 한국(서울)YMCA의 창립기에서부터 세대별로 분석 평가한 발제를 통해 파란만장한 한국(서울)YMCA의 100년사를 더듬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현대 문화사 그리고 현대 기독교사를 읽을 수 있었다.

평가에서 보면 한국(서울)YMCA는 100년간의 운동을 이끌어오면서 세대마다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에 대한 분단한 자기성찰과 각성을 거듭해 오고 있다. 목적에 입각한 자기반성을 통해 YMCA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으며 바로 이를 밑거름으로 1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

2003년 10월 28일은 지난 한 세기의 YMCA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또 하나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축적한 YMCA의 업적, 공신력, 도덕성, 조직력, 지도력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YMCA가 지난 100년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의 효시이며 원형이었던 YMCA운동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각계각층의 사회운동에도 새로운 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토론자가 특별히 100년사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 관심하는 부분은 80년대에 이르면서 YMCA가 운동체의 성격에서 이탈하여 기구화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서울 YMCA의 경우 80년대에 이르러 프로그램 참여 연인원이 300만 명으로 일일 평균 8000명이나 될 정도로 다양다기화한 활동을 전개한 업적은 인정하지만 회원구조가 프로그램 회원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람들이 YMCA를 운동체로서가 아닌 기구로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유감이다.

주제발표의 맺음말을 보면 최근 들어 회원확대운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생협, 청년Y, 대학Y, 시민회, 청년 클럽들이 대부분 해체되거나 활동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한다. 그 결과 서울 YMCA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는 회원동력과 회원지도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어서 운동지도력의 재생산력까지 무력해지고 목적에 근거한 운동체로서의 Y의 존립과 위상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YMCA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겪고 있는 오늘의 딜레마가 바로 목적사업추진과 재정조달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시민이 신뢰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문화가 척박한 상황에서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게 되고 수익사업에 치중하다보면 재정투여가 필요한 목적사업에 소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MCA에게는 다른 것을 주문하고 싶다. YMCA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회원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청년운동, 국제적 운동체이다. 지난 100년간 축적한 저력을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이 아닌 회원의 운동체로서 그리고 청년의 운동체로 회복하는데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60-70년대 활발했던 대학Y운동을 되살려 내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변화된 세대를 잊고서 하는 말은 아니다. 물론 그 양식은 다를 수도 있다. 8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다수가 대학Y운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점은 또한 YMCA가 특화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타 시민단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YMCA 100년의 역사를 보면 YMCA는 이미 1922년 4월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 북경 회의에 지도자들을 파송한 경력이 있다. 이 때에 토론자가 현재는 회원으로 속해있는 YWCA의 창설자인 김활란 박사와 김필레 선생도 함께하고 있었다. 한국 YWCA가 이 회의 직후 같은 해에 창설된 것으로 미루어 YWCA는 대학Y운동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Y운동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운동 그리고 회원의 운동으로서 YM-YWCA 운동의 핵심주체세력이다.

60-70년대 활발했던 대학Y운동은 YMCA와 YWCA가 연대해서 이뤄낸 것이다. 여름마다 남녀가 함께 하령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모이는 워크숍, 이들과 함께 한 기독교 교수들의 모임 그리고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빈번한 국제회의를 통해 에큐메니컬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Y운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YM-YWCA가 특히 재정문제로 대학Y운동의 문을 좁히면서 YM-YWCA가 동시에 기구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제 한국 YMCA는 100년의 역사성을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창출해야 하는 시점에 서게 되었다. 우선적인 과제로 토론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구화된 YMCA를 역동성 넘치는 회원의 운동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증가 추세에 있는 프로그램 참여 회원들이 주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YMCA의 결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다. 서울 YMCA가 프로그램 참여 회원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성회원에게 동등한 자격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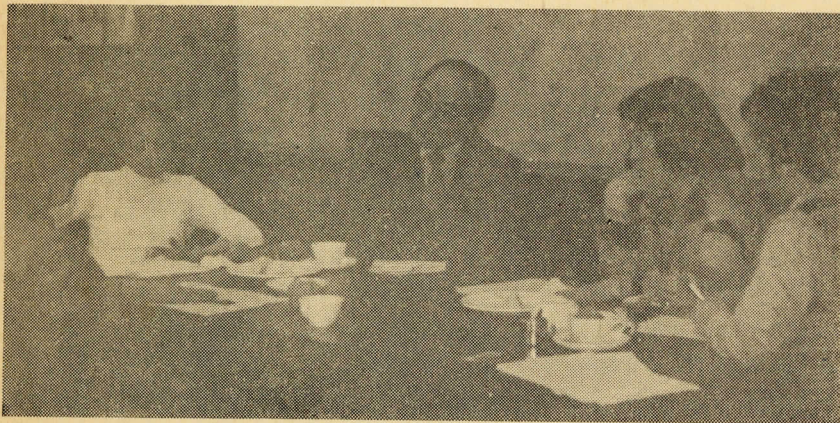
수익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YMCA가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이해가 되나 어쩌면 그것이 YMCA와 YWCA가 같은 기독교청년운동으로서의 동질성을 지닌 남매공동체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원래 지니고 있었던 협조체제가 예전 같지 못하게 된 원인일 수도 있다. 양 운동체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회복된다는 것은 양 운동체에게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비롯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주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YWCA에 속해있는 사람이기에 하는 것이라고 웃어넘기기에는 절실한 측면이 있다. 21세기는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기이다.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남녀청년들이 YM과 YWCA에서 지향점과 전략을 같이할 때 사회변혁을 위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YMCA와 YWCA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여

● 좌담

새역사관에 따른 새 가치 창조를

—1979년에 YWCA에 바란다



때 : 1979년 1월 17일(수) 오후 3시 반

곳 : 대한 YWCA 연합회

참석자 : 김관석(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김유숙(세계어린이해 특별사업 담당관)

송정숙(서울신문 문화부장)

신용자(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부 문공사회과 사무관)

박영숙(사회·연합회 공보출판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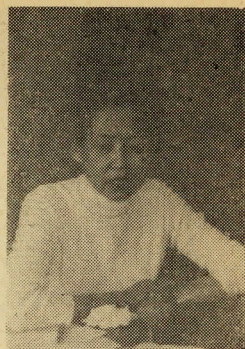
〈김관석씨〉

사회: 79년은 80년을 바라보는 해이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의미로 중요한 해인것 같아요. 우선 민족적으로는 기미년 3·1독립만세사건의 회갑이면서 유엔에서 정한 세계 어린이 해이기도 하고 교계(敎界)로서는 선교 100주년을 향한 시기인데다 세계 정세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고 특히 YWCA로서는 Y의 3년간의 운동방향을 결정짓는 전국대회와 4년마다 열리는 YWCA세계대회가 모두 금년에 열리기때문에 79년은 Y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올 80년대를 분석하고 Y의 새 과제를 찾아보자는 것이 이 좌담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국제운동, 청년운동 나아가서는 민족운동체등의 성격을 갖고있는 YWCA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보신 견해를 나눔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신적인 지표 보여주지 못해

김관: YWCA는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이루는데 있어 YMCA와 함께 선구적이고 촉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YWCA가 벌이고 있는 전체적인 활동운과는 알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할 정도로 알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운동체인 Y가 속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독교 역사를 생각하면서 아울러 Y에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얼마후에는 100년이 되는데



〈김유숙씨〉

지난 1세기동안 한국 기독교가 이루어놓은 것을 볼때 지난 70년 후반기부터 요 몇년사이가 역사적 전환기라고 생각해요. 이 역사적 전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사람들을 나는 여성과 어린이라고 봅니다. 저자신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생각은 전통적이어서 여성은 결혼하면 가정주부가 돼서 자녀를 잘 키우기만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지난 4-5년간 한국여성의 다른 면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문제에 부딪히면 운동에 대한 참여의식, 책임감은 물론 깊은 열정을 갖고 사회와 국가에 대해 헌신하는 것을 목격하고 한국여성의 새로운 잠재력에 새삼 놀랐어요. 그런 면에서 Y가 앞으로 새로운 역사의식을 갖고 이런 여성들의 잠재력을 개발할수 있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룩할수 있다고 봅니다.

김유: Y하면 사람들이 권위를 가진 기관으로 보고 딱 두려워 하는것 같아요. 개척자적인 정신을 갖고 문제를 다루고있고 소비자보호 활동등을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여론화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Y를 직접적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Y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 Y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 사회에 군림하고 있으면서 어떤일을 할수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충분히 가진자, 부족한것이 없는자들의 참여가 보다 많은것 같아서 치외법권시대같은 기분이 들때도 있어요.



〈송 정 숙 씨〉

또 보수적인 아성을 쌓고 도전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송: Y가 왜 그렇게 귀족적이나 하는 생각은 지금 신선생님 말씀과 같아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Y에 대해 갖는 생각입니다. 아까 김관석 목사님이 여성의 잠재력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여성의 자질에 대해 기대를 안하셨지요. 이것은 비단 김목사님의 생각만은 아니예요.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썩고 있는 여성 인력에 대해 YWCA가 신경을 써야만 할것 같아요. 막대한 투자를 해서 교육받은 여성들이 가는곳은 「시집가는」거라는 생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교육받은 여성은 그래도 다르구나』하는 인상을 하나도 주지 못하고 있지요.

한국의 교육받은, 꽤많은 여성들이 모인 Y에서 그런것에 대한 정신적인 지표를 최근에 보여주질 못한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기미년 당시에는 독립운동 자체가 의미를 가졌었기 때문에 Y에 선구적인 여성들이 모여있다는 것 만으로도 그 무엇을 할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이념설정이 되지않는한 YWCA운동 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수있는 운동으로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게 필요 불가결한 곳에서 불꽃처럼 일어날수 있는 여성의 잠재력이 있다면 Y는 이것을 개발하여 동력화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신 용 자 씨〉

온 인류구원의 초창기 Y정신 찾아야

신: 또 하나 Y에 대해 느낀것은 너무 시대조류와 어울리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Y가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것은 중요하지만 가족법이나 소비자활동등은 이제 Y가 하지않더라도 시대조류에 밀려서 어쩔수 없이 다 해지는일이기 때문에 Y같은 조직력으로는 다시 새로운것을 찾아서 아무도 손 안대고 있는 어떤 문제의 기초자료조사 같은것을 해서 또 새로운운동을 사회에 던졌으면 해요. 어떤 단체든지 저력을 갖고 일을 하려면 활동의 밑받침이 되는 자료조사를 해야 하는데 무급지도자를 많이 활용할수 있는 Y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정부도 할수없는 큰일을 해낼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 지금까지의 말씀으로는 Y는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력과 공신력으로 하고저하는 일을 해낼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말씀인것같군요. 그러면서 하나의 선행과제로서 여성의 독특한 잠재력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저의 생각으로는 그 잠재능력을 개발하되 무엇을 위해 할것인가 하는것이 먼저 설정되어야 할것 같아요. 김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전환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개발이라면 더욱 그 정신은 문제가 된다고 보아쳐요. Y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며 Y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은 물론 기독교정신에 입각한것이 되지요. 그런데 한가지 우려하는것은 100

이기적인 신앙에 머문다면 큰 문제이지요.



〈박 영 숙 씨〉

여년전에 교권주의를 박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안에서만 아니라 온인류, 역사전체를 위해 이루어진다는것을 확실히 믿고 Y운동을 창설했던 당시의 Y정신과는 거리가 먼 내세지향적인 개인심령구원에 치중하는 요즈음의 교계의 바람이 Y의 기독교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을것 같아요.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소식으로서 세계 Y가 기독교운동으로서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가인 나라에서조차도 기독교가 이미 윤리나 도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교회는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올리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결과에서 생겨진 것이지요. 한국 Y가 이런 도전에 직면하지 않는 길은 초창기의 Y정신으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관에 입각한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것이 아닐까요?

김관: 지난 10년내에 한국의 사회발전이 급격하게 된것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가정의 가치관, 남녀의 가치관, 상하의 가치관등 사회 공동체안의 가치관이 변화했는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은 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성뿐 아니라 한국의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같이 책임져야할 일이라고 봐요.

또 지금 이야기한 내세지향적이고 개인심령구원 치중의 최근의 교계의 바람이 진정한 가치를 창조할수 있는 것이며 그에 따른 결실을 가져올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것이 만일

올바른 가치관 심어주는 어린이해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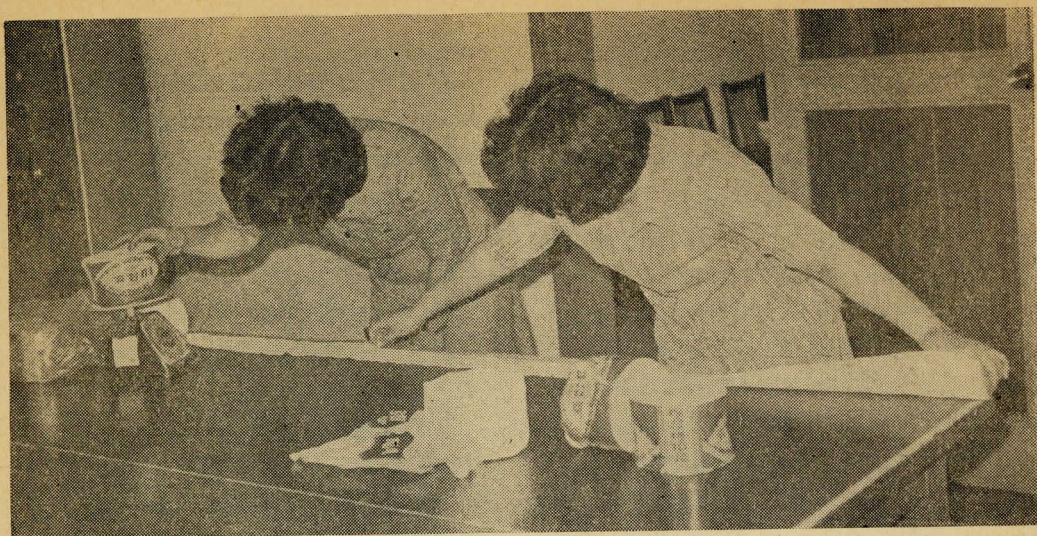
송: 사람들의 관심이 개인화 돼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터인데 Y의 「사회정의를 향하고 있는 자세」만은 항상 선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사회: Y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야기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거울삼아 Y가 앞으로 할일을 찾기위해 앞으로 올 80년대의 과제를 살펴 봐야할텐데 우선 금년이 「세계 어린이 해」이니까 어린이해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김관: 요즈음에 자라나는 어린세대를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가 어른이 될때 한국사회가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보면서 갖는 생각이지요. 어린이들이 이대로 자라다가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파탄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느낍니다. 학교교육, 사회교육도 문제지만 좋은 가정교육이 제일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있어도 훌륭한 지도력을 키우는것은 가정교육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어린이 해에는 어린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도 어떻게 키워서 교육시킬 것인가에 더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유: 금년이 세계 어린이 해로 된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미년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찾기위해 애썼던 해라면 금년에는 한국에서 위축당했던 어린이의 인권을 되찾을수 있는 일에 힘쓰라는 것 같아서요. 어린이 해인 금년에 Y에서는 어린이를 위해 잘못되어있는 법을 고치는 일에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경제발전에 많이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인간투자에 힘쓰도록 많은 단체들이 선의의 압력을 가해야 할것 같아요.

신: 저도 어린이해 TV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것인데 어린이 문제를 급식, 놀이터, 무거운 책가방등 너무 물질위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것 보다는 어린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나갔으면 좋겠어



<상품의 품질문제등에 주력했던 Y의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운동으로 발전돼야한다>

요.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없는 어린이들을 죽일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하는 사건들이 요즈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시정하면서 어떤것을 올바른 가치라고 가르쳐줄수 있는지를 진요하게 설정해야 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계 어린이해의 의미가 5월 5일 어린이 날행사를 1년내내 연장하는것과 별로 다를것이 없다고 봐요.

「어떤 어른으로 키울가」 모델설정필요

송: 지금 신 선생님께서 말씀한것을 바꿔 말한다면 어린이를 어떤 어른으로 자라게 할것이나에 대한 목표설정이라고 봐요. 내 아이를 어떤 어른으로 키우면 사회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본인도 행복할수 있는 어른으로 되게 하느냐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즈음 부모처럼 애들을 위하고 떠받드는 부모가 일찌기 있었어요? 자유를 얻기위해서 서구사회에서 기독교가 감당해온 역할을 볼때 동양에서는 그런 역할을 유교가 맡아왔다고 보는데 우리에게 정신적인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조차도 어떤 어른이 되게 하고싶다는 모형이 없어요. 어린이 해를 맞아 행동하는 일은 다른 단체에 맡기더라도 Y가 어린이를 어떤 어른으로 키울것이나에 관한 몇가지 모델을 설정하기만해도

그처럼 고마운 일이 없겠어요.

사회: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닮아가려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어린이가 청년기 없이 어른이 될수는 없다고 보아져 청년문제에 관심을 안가질수가 없지요. 특히 한국Y는 대학생운동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점이 세계 어느나라 Y와도 다른점이며 한국Y가 청년성을 유지할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대학생Y운동과 청소년활동이 제제를 받으며 자율성을 잃게 되면서 Y의 청년성이 약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어른이 되는 올바른 모델설정이 어렵다는점을 들어 우선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일부터 힘써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일은 Y자신보다도 사회각계에서 여론을 환기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신: 힘은 들지만 Y는 청소년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살려야지요. 그리고 Y가 명동 한복판에 있으면서 여기에 와서 활동해야만 Y운동에 참여했다는 생각은 지양됐으면 해요. Y운동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어느구석이든지 파고 들어서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봐요.

사회: 앞서 어느분이 지적했듯이 Y가 지금까지는 생겨진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방향의 프로그램을 주로 했다면 앞으로의 80년대는 변화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하여야 할텐데요. 우선 80년대를 분석해 보지요.

자유·인간의 존엄성 추구할때

송: 80년대는 일단 경제적인 풍요사회가 어쩔 수 없이 온다고 봐야하지 않겠어요?

김관: 경제문제에 대해 많은 지식은 없습시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낙관할수 없다고 봐요. 우리경제는 90%이상이 외국경제에 의존하고 있어서 외국경제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고 봐요. 80년대는 우리민족이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책임있게 생각하고 결단할때라고 생각해요.

송: 저의 얘기는 내용은 차후문제로 두더라도 외형적으로는 경제적인 풍요를 지향하는 사회가 일단은 오지않겠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정신적인 면에서의 도전이 기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것은 자유라는 것이 돼야 하겠지요.

신: 경제문제나 인력문제 같은것은 그 흐름에 따라갈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형태가 원하는 원치않든간에 변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여성도 월부로 냉장고나 가스레인을 사다놓고 빨리 식사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먹고사는 사회가 올것 같아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명문대학입학이 곧 출세의 길로 생각하고 과외를 열심히 시키는 바람이 계속되겠지요.

송: 한두사람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거대하게 밀려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먼저 보는 눈을 길러야 될것 같아요. 그것이 원하는 원치않든간에 오고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한 통찰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회: 풍요사회가 온다고 가정한다고해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오는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Y는 문제를 찾아야 할것 같아요. 80년대는 자유 평등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가 되지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 자생적으로 그런 움직임도 올수 있겠고 또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는 움직임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 너무 갑자기 변화가 와서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 자유 평등 평화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지는것 같아요.

김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 해결수록 발달하는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이기적이 될수록 성령주의에 빠지기 쉬어요. 그것은 자기 죄책감에 대한 보상을 그런것으로 해서 위로를 받는것이죠.

Y가 80년대를 향한 새로운 운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Y구성원들이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할수 있어야 할거예요. 내 자녀나 잘 키우고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됐지 사회의 돌아가는 문제를 생각할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운동은 힘들고 이 잘못된 흐름을 바꾸는 데 자기 몸을 바쳐서 희생하는 정신이 있으면 Y가 새로운 정신운동을 일으킬수 있다고 봐요.

송: Y에 기대해 볼수밖에 없어요. 돈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Y에 다녀가면 종합진단을 받은 사람처럼 정신적으로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갖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 엄청난 과제가 제안되었는데 과연 Y가 해낼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송: Y가 갖고있는 기본적인 여건때문에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외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Y의 어떤 내부여건때문에 이런 문제에 접근조차 안한다면 Y의 존재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Y가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정화를 위해 힘쓰라는 것은 아니나 전인구에 비하면 소수이겠으나 목적을 수락하고 회원이된 여성만이라도 Y가 벌이고 있는 운동에 참여하므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면 이것은 무시할수 없는 공헌이라고 봅니다.

김유: 저도 기독교여성단체에 속해 활동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정신적인 혁신을 일으켜야겠죠.

김관: 앞서서도 말했지만 앞으로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추구가 Y프로그램에 반영돼야 할거예요. 이것은 구호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이 돼야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Y가

하는일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고있는 것이 소비자보호운동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잘 되어 왔지만 이제는 소비자 보호운동에서 소비운동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봐요. 소비운동이라고 하면 우리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운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80년대에는 모든 경제적인 발전의 여파가 물결처럼 쳐올텐데 우리의 소비운동의 패턴에 따라 경제적 생활양식을 바꿔나갈수 있다고 봐요. Y의 소비자보호운동이 이런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운동으로 돼야할것 같아요. 「소비자보호운동은 인권운동」이라고 Y가 내세웠듯이 자유와 책임, 인간의 존엄성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 되도록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소비자보호운동에서 소비운동으로

사회: 소비운동이란 올바른 소비태도를 위한 운동을 말씀하시는것이지요. 소비자보호운동이 단순히 상품의 적정가를 위해서 또는 불량품의 생산을 막기 위해서만 있는 운동에서 벗어나서 현대인의 그릇된 소비태도에대해 근본적으로 관심을 갖자는 것은 이미 거론되고 있는 인류의 멸종의 원인이 될수도 있는 자원문제나 공해문제 해결에도 관련되는 것이지요.

송: 많은 이론을 운동으로 실천할수 있는것이 소비자보호운동이라고 볼수 있어서 Y운동에서 좀더 새롭게 해야할것이 소비자운동이라고 봐요. 이미 어린이 문제도 언급이 됐지만 어린이 문제는 교육문제부터 거론돼야 하리라고 보는데 사실 교육문제도 소비생활운동에 다 들어갈수 있어요.

사회: 이 해는 3.1 독립만세사건의 회갑년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국제정세의 급변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큰 변화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통일문제에 우리들의 생각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나 본데 그런 기대는 아직 시기상조인가요?

김관: 통일문제가 우리민족의 염원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하는것은 아무도 제시할 수가 없을것 같아요. 단지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풀리고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것만은 틀림없고 전쟁위협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니 냉전체제를 연상하고 있던 모든 국내의 정치는 일단은 지양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 내부적인 변화가 자연적으로 따라오지않을까 생각해요.

송: 통일문제는 역시 강력한 우리민족의 염원으로 두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한다면 통일이후에도 이것은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라고 봐요.

사회: Y가 이미 계획했거나 하고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읍니다. 정말 Y가 하여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앞서서도 지적 되었지만 Y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룹을 향해서 일보다도 증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많다는 평가를 해 주셨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인력이 쓰여지질 않고 있는 일에도 눈을 돌려야한다는 말씀도 또 강조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는 벌써부터 유의하고 있는 문제로서 계속 Y는 관심을 가질것으로 압니다만 사실 박사학위를 받은 고등여성인력이 자신보다 유능한 지도력을 포섭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혈족관계로 얽히고 있는 사회풍토로 인해 썩고있는 현실을 볼때 Y는 전체여성들을 위해 활일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지요. 50여년전 민족운동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한국 Y운동이 일제로 부터 해방된 이후 사회개혁에 주력해 왔고 앞으로의 한국Y의 과제는 새로운 역사관에 입각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기수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오늘 재확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바쁘신 시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선사업 센터

활발해 졌으면...

—어린이해에 바라는 어린이 소망—

안재 권 (한신국민학교 4년)

올해는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어린이 해」이다.

1959년에 제정된 유엔의 어린이 권리선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것이라고 한다.

헌데,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 자연보호운동이 일어나니까 혈레벌떡 「나무를 보호하자」 「환경을 깨끗이하자」는 등의 법석을 떨고, 또 「세계 여성의 해」니까 여성상위시대다 뭐다 야단하더니, 그해가 지나니까 이런것도 저런것도 다 끝나 버렸다.

「세계 어린이해」가 되니 또 어린이를 보호하자고 해서 여러가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보다.

그 기간만 법석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그만 두는것 같은일은 아주 싫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한다. 늦었지만 이 해를 시점으로 어린이 해가 지나더라도 계속 어린이 보호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어린이 해에 바라는것은 너무나도 많다.

집에서의 일이다. 누나가 약속을 안 지켰다. 내가 따지니까 누나는 나도 약속을 안지켰는데 누나가 그러면 좀 어떠냐는 것이다. 나는 할말

이 없었다. 하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는데 내 핑계를 댈다면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다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 주셔야지 어린이가 어른에게 본을 보여 줄수는 없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화를 내고 때리는 것 등으로 억압하여 어린이들의 말문을 틀어막는 일이다. 물론 어린이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잘못된 때도 있다고 본다.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나와 따져서 잘하고 잘못한것을 가려내서 잘못했을때는 아빠도 나에게 사과할때도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너무 무시한다. 모든 일을 무조건 어른 위주로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부모. 어린이는 싫다고 하는데 바이올린을 배워라, 피아노를 쳐라, 과외공부다, 태권도다, 주산이다, 영어공부다등 너무 시키는 부모님들. 물론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어린이로서는 그제 여간 참기 힘든것이 아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해오라고하는 숙제가 너무많아 쟁쟁떨때가 한두번이 아니고 보면 우리의 하루는 아주 힘들다.

어른들 중에는 돈만 벌면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있다. TV선전이 그렇다. 어린이 시간인데도 요란한 음악과 함께, 고고춤이 나오며 카세트라디오 선전, 또 가구선전. 선전이 지나치다는것은 어린이 월간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잡지의 내용의 5분의 1이상이 선전물로 차있다. 월간잡지는 우리들의 읽을 거리가 아니라 광고모음 책이고, 진짜 있어야할 내용은 광고를 읽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 팔려있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즉, 요란한 광고에 비해 있어야 할 내용이 적기 때문이다. 또 어른들의 TV 프로그램은 하찮은것까지 악착같이 하면서도 어린이것은 축구중계다, 체육대회 입장식이다, 하면서 다 없애 버릴때는 화가 난다.

만화 가게에서는 어둡침침한 곳에서 단정치 못

한 글씨, 좋지 못한 내용의 만화를 보여주고 있다. 만화를 만든 사람이나 가게주인은 어린이를 키워보지 못한 사람들일까?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일은 그뿐이 아니다. 요즘 번데기 사고를 보아도 비위생적인 자루에 넣는가 하면, 심지어는 농약이 묻은것도 살피지 않았다.

또 떡볶기, 뽕기등의 비위생적인 식품들. 물론 이것들은 잘만들면 좋은 음식일 테지만, 위험한 전염병 환자가 생을지도 모를 불결한 식기, 비위생적인 제조과정등으로 우리들은 불안에 떨지않으면 안된다.

불량장난감도 그 하나이다. 주사기 사고, 딱총 화약사고가 그 예이다. 적은 돈으로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어서 팔고있는 것을 볼때 왜 어린이들이 돈버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한다. 죄없는 어린이를 유괴하여 돈을 끌어내고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 빼앗는다. 국민 학생 살해강도사건을 보라. 그것도 단지 반지 한개가 이유였다.

어린이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것은 또 있다. 한강의 웅덩이, 맨홀구덩이등도 철없는 어린이들을 죽이는 원인이 되고있다. 돈이 없어서 때우지 못 했는가?

어린이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원망스럽다. 끝내는 어른들의 무관심이 아파트 근처의 어린이 동사사건까지 일어나게 했다. 그 부근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밤새 어린애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누구라도 한번쯤은 나가보는것이 도리일터인데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아주 무관심 했기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 왔다. 어른들의 무관심이나, 탐욕은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수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어린이는 이나라의 장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어른이

면 제일인지!!! 궁금하다.

이해는 어린이 해라고 한다. 우리들이 특별히 바라는것은 무엇보다도 유엔의 어린이 권리 선언문과 우리나라의 어린이 헌장을 어른들이 모두 한번씩 읽어보고 이것을 말로만 외칠것이 아니라 꼭 실천해 주었으면 하는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어린이 헌장 제 1 조인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를 지켜주었으면 한다.

내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불우한 어린이들을 먹여주고 교육해주는 자선사업센터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집의 어린이들도 어린이 대공원이나 과학관 같은 곳에 갈수있도록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어린이 회관도, 공원도, 모든 어린이를 위한것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 어린이 권리선언 1,2원칙과 어린이 헌장 7조에 있는것같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교육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학교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사는 에틴저 마을의 문둥병환자였던 사람들의 아들딸들이 그부근의 학교가 입학할 거부하여 학교에 못가게 되자 그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학교가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스쿠울 버스로 통학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써 나는 우리학교를 자랑하고싶다.

어린이 해를 위해서 어른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것은 아니다. 우리들도 효도는 물론이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공중도덕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어서 나만의 위주보다는 모두의 위주를 따르는 어린이가 되어야 하겠다. 누구보다 더 주일학교에서 나는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신다고 배웠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사랑해주시는 착한 어린이가 되며, 어른들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어린이와 부모가 읽을만한 책

하늘을 나는 장화

프랑스의 대표적 풍자작가 마르셀 에메의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동화. 어린이나 어른이 자기 자기 세대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세대를 상징적으로 그린 작품집이다.

오생근 번역. 과학과 인간사 발간. 값 1천 2백원

백설공주의 계모는 어떻게 되었나?

『이 책이 내가 살고있는 현장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번역하기로 했다』고 번역자 차경아씨는 말한다. 어린이의 세계, 동화의 세계를 통해 그 뜻을 펴는 독일작가 라이너 쿤체의 대표작.

차경아번역. 두레사발간. 값 1천원

세계명작 독수리 칼라 문고

김요섭·박화목·서경주·이원수·장수철씨를 편집위원으로 국민학교 학생을 위해 제작된 1백권의 책. 절가면, 알프스의 소녀등 세계명작과 세종대왕, 나폴레옹등 국내의 위인전기, 그리고 곤충기, 동물기등으로 되어 있으며 책머리에 편집위원들이 쓴 작품 해설집이 있다. 태창출판부 발간. 값 6백원씩

당신과 당신의 어린이

50여년의 교수생활을 어린이 교육에 바쳐온 역자가 어린이 교육에 대한 사랑과 정열로 펴낸 책이다.

제1부 당신과 당신의 어린이, 제2부 어린이의 책임감은 어떻게 길러지나?, 제3부 어린이의 사회적 성장을 도와주자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녀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곤란한 문제에 부딪힌 어른들을 위해 필요한 책이다.

윌리엄 C. 메닝거, 쾰스탄스 J. 포스터, 엘리스 바이즈넨 지음, 김애마 역. 이화여대 출판부 발간. 값 1천 5백원

삶과 믿음의 교실

일선 교육현장 특히 산골 벽지에서 어린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느낀 체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교육현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룬 교육수상집.

I 장 삶의 교육, II 장 아이들을 믿어야한다, III 장 믿음을 심는 문학과 교육, IV 장 단상·시평으로 나뉘

어져 있다.

이오덕 지음. 한길사 발간. 값 1천 5백원

딤스(자아를 찾은 아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딤스라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강한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

「놀이치료」의 권위자로 세상에 알려진 엑슬린 여사의 책을 번역한 것으로 5세된 한 남자어린이의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마침내는 친제아동의 본질을 유감없이 발휘해간 것을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있다.

U.M.엑슬린 지음·주정일, 이원영 공역. 진명문화사 발간. 값 1천 2백원

부모와 침대

제목에서 밝히고 있듯이 부모와 침대의 자녀간에 가로놓여있는 대화의 장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가능한한 부모와 자녀가 아무런 충돌 없이 같이 살수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H.G. 기너트 지음, 김순희 옮김. 해신 문화사 발간. 값 1천 2백원

엄마와 아기

어린이 발육에 관해 학부형, 교사들에게 행한 저자의 일련의 강의 및 세미나의 내용을 주로 발췌하여 체계화한 것과 뉴욕 사회연구소에서 얻은 자료 몇가지를 첨가해서 만든 책으로 정신분석적 사고에 원인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어린이, 학부모 및 교사들이 제기한 문제의 질문과 토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에디트·복스마움 지음, 이창주 옮김. 민중서관 발행. 값 1천원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이 아동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엮은 책.

이화유치원의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모범적으로 생각되는 교육과정을 제시한 연구실험서이다.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지음. 이화여대 출판부 발간. 값 3천원.